■민주 박상천호 출범

통합파 포용…정계개편 주도권 잡나

민주당 대표 경선에 참가한 후보들이 3일 오후 잠실 올림픽공원 펜싱경기장에서 열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손을 맞잡아 올려 인사하고 있다. 사진 가운데가 이날 대표에 선출된 박상천 후보이며, 왼쪽부터 심재권, 김경재, 김영환, 장상 후보. /연합뉴스

당내 반발세력 아우르기 정치력 시험대로

열린 우리당 배제 '빼셈 통합론' 논란 부상

격랑의 대선 구도 과정에서 민주호를 이끌어 나갈 새로운 선장으로 박상천 전 의원이 선출됐다. 당초 민주당 대표 경선은 박상천 전 의원의 손쉬운 우세승이 예상됐다.

그러나 막판 민주당 현역의원들의 집중 지원을 받은 장상 전 대표의 분투로 마지막까지 승자를 알 수 없는 아슬아슬한 상황을 연출한 끝에 결국 박 전 의원이 239표 차이로 승리했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 입문한 장상 전 대표는 짧은 정치경력에도 불구, 현역의원들의 지원을 업고 대역전극을 노렸으나 마지막 뒷심 부족으로 고배를 마셨다.

이 같은 결과는 민주당 대의원들이 정계개편과 대선을 앞두고 있는 중요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장상 전 대표의 '정치적 유연성'보다는 박 전 의원의 '정치적 경륜'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대표 경선에 나서지 못한 채 장상 전 대표를 지지했던 통합파 현역의원들에게 이번 대표 경선 결과는 '고건 발 쇼크' 이후 또 한번의 시련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은 박 대표 체제의 민주호가 추후 정계개편 과정에서 과연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호남 민심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의 발걸음에 따라 추후 정계개편과 대선 구도가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우선 박 대표는 그동안 밝혀온대로 열린우리당 탈당 그룹과 열린우리당 일부 세력 등과 함께 오는 4·25 재보선 이후부터 중도개혁신당 창당 준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중도통합신당 창당 움직임으로 열린우리당을 흔들어 2차 탈당을 유도한 뒤 민주당 중심의 정계개편을 이끈다는 것이 골자다.

이와 관련 박 대표는 여당 탈당 그룹은 물론 열린우리당 일부 세력과 중도통합신당 창당과 관련, 어느정도 밑 그림을 그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박 대표 체제의 민주당이 정계개편의 파고를 넘어 수권 정당으로 도약하기에는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우선 대표 경선 과정에서 장상 전 대표를 지지하며 감정의 골이 깊어진 통합파 성향 현역의원들과의 '불편한 관계'청산은 박 대표의 지도력을 시험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표가 현역의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정계개편 논의를 진행하기 보다는 특유의 오만한 자세로 군림하는 자세를 보인다면 민주당은 오히려 내홍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치권의 관측이다.

여기에 열린우리당 주도 세력을 중도통합신당에 배제시켜야 한다는 '빼셈 통합론'도 상당한 논란거리로 부상할 전망이다.

박 대표가 보다 유연한 자세로 범여권과 정계개편 논의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중도통합신당 창당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며 박 대표 체제의 민주당이 오히려 대통합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현 정부내 연금개혁 결국 실패

■국민연금법 개정안 부결

국민연금 개혁이 좌절됐다. 3년여를 끌어왔으나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가세한 열린우리당의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한나라당의 수정 동의안이 모두 부결된 것이다. 법 논리상으로는 다음 회기에 국회에 개정안을 다시 제출하면 되나 제출 명분이 약한데다 보건복지위→법사위→본회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과정, 대선·총선 일정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현 정부 임기내에서 연금 개혁은 실패한 셈이다. 이에 따라 국회가 정치적 이해 관계 등에 의해 시급히 처리해야 할 중요한 정책 결정을 방기했다는 비난 여론이 뜨겁다.

"대선 앞둔 정치권 표 계산만…" 비난 여론

정부 "40년후 기금 고갈" 조속 처리 촉구

◇**왜 무산됐나**=정치적 이해관계가 맞섰다는 게 중론이다. 당장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표계산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이 작용됐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대선에서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더 내고 덜 받는' 쪽의 연금 개혁을 주장했다가 손해를 봤다는 '교훈'도 작용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외견상으로는 기초연금제 도입 여부를 둘러싼 대립이 뇌관이 됐다. 한나라당과 민노당은 연금 급여의 10% 수준의 기초연금제 도입안을 내놨다.

반면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을 통해 노령연금이라는 명목으로 연금 급여의 5% 급여안을 고수했다. 한나라당 안대로라면 재정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재원이 소요된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이 같은 견해 차가 엇갈려 연금 개혁이 좌초했지만 대선을 8개월여 앞두고 '정책 전초전'을 벌였다는 인상이 농후하다. 대선 당락의 향배를 쥐고 있는 노인표를 최대한 유입하려는 데만 주력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운 대목이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사실상 현 정부 임기내 연금 개혁은 물건너 갔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시 추진한다면 그 진원지는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될 것이나 이번에 부결된 연금법 개정안의 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와 함께 설령 다음 회기에 개정안을 다시 제출하려 해도 국회 내 논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거쳐야 하는 것도 상당한 부담이다.

복지부 내에서는 "연금 개혁을 사실상 접을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묻어 나온다.

◇**심각한 후유증**=현행 연금 체계로는 2047년이 되면 기금이 고갈된다. 1988년 연금 설계 당시 너무 후하게 짜여져, 이대로라면 조기 기금 고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각 정당이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의 개편을 모색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는 현(現) 세대가 후(後) 세대의 희생을 토대로 노후 보장을 받는 것과 다름없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을 둘러싼 '세대 전쟁'을 우려하기도 한다.

◇**정부 강력 반발**=권오규 경제부총리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3일 '국민연금법 개정안 부결에 대한 정부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국민연금 제도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와 같은 '저부담·고급여' 방식의 국민연금 구조 하에서는 앞으로 40년 후에 연금이 고갈된다"면서 "2047년 이후에도 현재처럼 연금을 지급하려면 근로세대가 소득의 30% 이상을 연금 보험료로 지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탄핵 역풍 고배…3년만에 당 대표 복귀

■박상천은 누구

2004년 17대 총선에서 탄핵 역풍으로 고배를 마신 뒤 절치부심 3년만에 당 대표로 복귀한 4선 관록의 베테랑 정치인.

서울대 법대 재학 중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 20년간 판·검사를 지내다 순천지청장을 마지막으로 지난 13대 총선에서 '평민연(平民硏)' 케이스로 김대중(DJ)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어 정계 입문했다. 서경원 전 의원 밀입북사건때 당시 야당총재이던 김 전 대통령의 변호인을 맡아 활약했고 야당 대변인을 거쳐 여야 원내총무 3차례, 국민의 정부 초대 법무장관, 민주당 대표 등 주요 직책을 두루 거쳤다. 13대부터 내리 4선을 기록한 중진의원으로 지방자치법, 통합선거법, 안기부법 개정 등 굵직굵직한 입법 실적이 많아 '법안 제조기'라는 별명도 갖고 있다.

▲고흥(69) ▲광주고 ▲서울법대 ▲순천지청장 ▲13.14.15.16대 의원 ▲평민.신민당 대변인 ▲국민회의 원내총무 ▲법무장관 ▲민주당 원내총무 ▲민주당 최고위원.상임고문 ▲민주당 대표 /임동욱기자 tuim@

"위안부 강제 동원 사죄·배상하라"

국회의원 47명 日 아베 총리에 공개서한

국회의원 47명은 3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제에 의한 군위안부 강제동원 사실을 부인한데 대해 공개서한을 발송, 사과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채수찬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공개서한에서 '아베 총리와 일본 정부가 일본군 성노예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관련 당사국이 참여하는 공동조사단을 구성할 것이며 일본은 성노예 여성들에게 국가의 이름으로 사죄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또 "국내 언론에서 사용하고 있는 '위안부'라는 표현은 '위로하는 여자', 즉 일종의 매춘부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 이는 일본군에게 붙잡히고 끌려가 억지로 성노예로 부림을 당했던 사실과 맞지 않는 표현이므로 앞으로 언론을 포함한 우리 모두는 이를 '성노예'라고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박근혜 헤어스타일, 다시 '올림머리로'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3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18차 한나라포럼에서 예전의 올림머리 모양으로 참석했다.

박 대표는 머리 모양을 바꾼 이유에 대해 "주변에서 머리모양에 관심을 보이니 살기가 참 힘들다"면서 "많은 분의 지지를 받아야 제가 바라는 바를 이룩할 수 있는 만큼 계속 올렸다 내렸다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왼쪽부터 이날 박 대표의 새로운 올림머리 모양,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의 머리모양, 박대표의 지난해 올림머리 모양〉 /연합뉴스

'여수엑스포 100만인 서명운동'

임채정 국회의장 등 동참

임채정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들과 국회 직원들이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에 동참한다.

국회 여수세계박람회유치특위(위원장 이인기)와 김성곤(여수갑)·주승용(여수을) 의원 등은 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국회의원회관 1층 전시실에서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이번 서명운동은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실시되는 BIE(세계박람회기구)의 여수 현지 실사를 앞두고 박람회 유치에 대한 국민적 지지 열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기획됐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